

국립광주박물관 '통형칠기 탄생'전에서 만난 칠공예전문가 최석현 씨

“전통기법으로 복원된 통형칠기 2천년전 기품 느낄 것”

2000년 전 광주 신창동 일대에서는 고도의 칠기 제작기술을 가진 집단이 살고 있었다. 신창동 유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칠을 담는 칠 용기를 비롯해 칠 완성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형칠기(筒形漆器)'도 포함돼 있다.

최근 국립광주박물관과 칠공예전문가 최석현(58) 최씨공방 대표가 협력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통형칠기 복원품을 만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국내에서 목기 복원은 외형복원에만 치우쳐 있을 뿐 실제적 복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신창동 통형칠기 '조임기법' 활용 복원

전통방법으로 20여점 제작 6개월 걸러

'명품 아트상품'으로 제작 논의 중



최석현 최씨공방 대표가 전통기법을 활용해 신창동 통형칠기를 복원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16일 특집전 '통형칠기의 탄생-2000년 전 목공기술과 옷칠의 복원'전에서 최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는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김기복씨를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유일한 칠공예 기능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전수자 이수자)다.

그는 “처음에는 공예와 복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통기법으로 복원을 맡고 나니 2000년 전의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최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복원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만 화예사가 신창동 통형칠기가 '조임기법'이라는 특수한 기법으로 제작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나서다.

“20여 점을 제작하는데 6개월이 소요됐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완벽하게 복원에 성공한 것은 몇 점 안됩니다. 2000년 전 칠과 목공예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리나무를 구해다가 표면을 깎고, 또 속을 파내 원통형의 몸통을 만들었어요. 또 저관, 즉 바닥판을 만들었습니다. 신창동 통형칠기는 몸통에 바닥판을 끼우는 기법이 사용됐어요. 당시에는 바닥을 고르게 남기고 파내는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최 대표가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닥판과 몸통을 결합하는 방법이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했다. 바닥판과 몸통을 결합할 때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깎아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몸통에 바닥판을 끼운 뒤 몸통이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조임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

러모로 고려할 것들이 많았다.

박물관에서 제시한 도면에 따라 백골(白骨·뼈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옷칠을 하지 않은 목기)을 만들고, 건조와 표면 고르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한지에 옷칠을 적용하고 있는 공예가 김도연(여·47)씨와 최 대표 밑에서 칠공예를 배우고 있는 아들(33)의 도움을 받았다. 옷칠은 모두 8차례에 걸쳐 했다.

“2000년 전 우리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2000년 전 물건이 복원돼 현재,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나무를 깎고, 옷을 채취해서 바르는 등 그때 당시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조임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공예와 문화재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박물관의 유물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역 공예가들이 함께 전통기법으로 복원해 내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해요.”

최 대표는 이번에 만든 통형칠기 복원품을 '명품 아트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논의 중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텀블러나 머그컵보다 통형칠기의 멋과 기품이 뛰어나고, 쓰임새도 많다는 생각에서다.

“옷과 나무는 자연소재입니다. 이것들로 하나의 창조산업을 만들 수 있어요.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 역사적 의미까지 더하면 명품이 되는 거죠. 제가 2000년 전 유물을 그대로 재현한 물건이 2000년이 흐른 뒤 또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통형칠기 몸통(위) 복원품(아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1972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전칠기 공예에 입문한 최 대표는 한국나전칠기보호협회 이사, 광주시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시는 4월6일까지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클래식으로 문화마케팅

‘다락 콘서트’

한국투자증권 내일 공연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에서는 다양한 클래식 강좌와 음악회가 열린다.

최근 기업들이 고객들을 위해 문화가 어우러진 기획들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체들이 문화 마케팅 일환으로 다락 콘서트를 활용,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투자설명회를 겸한 클래식 연주회를 열고 있다. 공연 후에는 연주자와 함께하는 와인파티와 디너도 마련한다.

미래에셋 증권은 지난해말 송년음악회로 피아니스트 김민희, 작곡가 김민정 초청 연주회를, 신년음악회로 유영민·서현일씨 연주회를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소프라노 이승희씨와 피아니스트 김성령씨를 초청, 송년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41회 다락콘서트는 한국투자증권이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유영민(광주대 겸임교수)씨와 재즈 피아니스트 강윤숙(호신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씨가 함께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내가 거리를 걸어갈 때면', 구노의 '방향하는 은빛 달빛이여', 흑인영가 '내 머리 위 하늘에서 음악이 들려오네', '그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네', 윤용하 곡 '보리밭', 김동신 곡 '진달래꽃', 조성하 곡 '고목' 등이 다.

또 '베사무 모쵸',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 '잠미빛 인생' 등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공연 전에는 투자설명감사 문서영(한국투자증권 광주 중앙지점 대리)씨가 '화양연화'를 주제로 투자 설명회를 갖는다.

공연 후에는 유리스미스홀에서 연주자와 함께하는 와인파티 행사가 열린다. 문의 062-220-4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영민



김민희

극단 얼·아리 '발톱을 깎아도'

광주연극제, 작품상 등 4관왕

18일 막을 내린 제28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얼·아리의 '발톱을 깎아도'가 최우수 작품상·남녀주연상·연출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박숙자씨가 희곡을 쓴 '발톱을 깎아도'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자살 시도를 하지만 결국 삶을 이어가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풍자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항구도시 변두리에 사는 노부부 대우와 순애. 순애는 귀가 잘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허리와 관절이 좋지 않아 걷는 모양새가 우습다. 대우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받기 위해 순애가 힘들게 걷는 것을 더 과장되게 연습시킨다. 그러던 와중에 순애가 집에 불을 내자, 대우는 순애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과장된 행동을 세심하게 코치하면서 각종 해프닝이 벌어진다.

'발톱을 깎아도'는 연출상(양정인)도 받았으며 이 작품에서 노부부역을 맡은 노희설·정경아씨는 남녀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극단 유괴 씨어터의 '강림, 저승가다'와 극단 사람 사이의 '바퀴자국'은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희곡상은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극단 까치놀이)의 김창일씨, 신인 연기상은 '바퀴자국'의 이영환·고은지씨가 수상했다.

지난 12일부터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등 모두 5개 작품이 경연에 올랐다.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얼·아리'는 오는 6월 군산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정인



극단 얼·아리 '발톱을 깎아도'

우리가락으로 봄을 부른다

오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 2014년 첫번째 연주회가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창작국악관현악의 선구자인 김희조의 '합주곡 1번'으로 문을 열며 조석연이 작곡한 국악관현악곡 '도약'이 뒤를 잇는다. 또 한국무용가 김해진씨가 남도 굿거리에 맞춰 풍류춤을 선사한다.

몽골 전통악기 호치르의 명인 아마르자르갈이 협연하는 '회상', 광대한 초원을 달리는 몽고인을 기상을 뽐내고 전통음악과 아쟁 선율에 담은 삼부트레부곡 'Mongolia horse'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판소리 전공자에서 가수로 변신한 유지나가 '한오백년', '고추', '쓰리랑' 등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613-8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은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개령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